

한국의 寂滅寶宮에 대한 공학적 고찰

장 태 현

An Engineering Approach to the Nirvana at Korea

Tae-Hyun Chang

Abstract: This study h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Buddhist remains at Korea. Particularly, the Nirvana and Sarira Pagoda at Tongdo temple, Sangwoun temple, Jungam temple, Bubheung temple and Bongjongam are handled by using on the observation, references and interviews with some experts in Buddhist culture. The results in Korea are compared with that of Thailand and China. But, The Nirvana and the Sarira Pagoda to keep Buddha's relic are quite different at each temple in Korea, Thailand and China.

Key words: Nirvana(적멸보궁), Hermitage(암자), Relick(사리), Sarira Pagoda(사리탑)

1. 서 론

적멸보궁(寂滅寶宮)이란 용어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 전각(殿閣)을 의미한다. 원어로는 Nirvana라 하고 이 용어는 고대 인도어에서 유래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용수 등⁽¹⁾은 오대산의 유적을 다루면서 상원사와 월정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암사에서 출판한 “태백산 정암사⁽²⁾”는 정암사의 불교유적과 정암사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통도사에서 출판한 “한국의 명찰 通度寺⁽³⁾”은 통도사의 불교유적을 소개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 특이하였다.

법흥사에서 발간한 法興寺는 법흥사의 창건 역사와 자장율사의 출가 및 그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 특히 신라 진성여왕 이후의

사회상과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스님들의 활동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⁴⁾.

한국색채문화사에서 발간한 韓國佛教美術大典 제3권⁽⁵⁾는 한국의 불교건축과 불탑을 삼국시대로부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적멸보궁에 대하여는 통도사의 대웅전과 사리탑만 소개하고 있었다.

중국의 법문사의 자료로는 孫秉志⁽⁶⁾는 법문사의 역사와 유물관계를 영문으로 번역하였고, 李本華^{(7),(8)}은 법문사의 역사와 유물의 개발 관계를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는 대부분이 태국어를 사용하였고, Prawit Tantalankul⁽⁹⁾ 만이 Doi Suthep 사와 Suandok 사원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역사를 일부 영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국내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찰은 오대산의 상원사, 태백산의 정암사, 설악산의 봉정암, 사자산의 법흥사 그리고 영축산의 통도사 등의 5개 사찰이다. 적멸보궁을 다루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relick)를 모

책임저자의 소속

E-mail : changtae@kyungnam.ac.kr

TEL : (055)249-2613,

FAX : (055)249-2617

저자의 소속: 경남대학교 기계자동화공학부

신 방법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수 천 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진신사리를 모신방법과 사찰은 그 규모와 건축양식이 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 유적에 대한 참고문헌과 논문은 다소 출판이 되었지만 이 유물에 대한 공학적인 고찰은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멸보궁의 건물의 형태와 공기의 순환방법 및 사리탑의 형태 등이 본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기도하다. 그리고 국내의 적멸보궁과 사리탑을 일부 태국 및 중국의 유명 사찰 과 비교 연구하고자한다.

2. 고찰방법

오대산을 몇 번 등반하였지만, 불교유물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지난 2004년 4월 중순경 K 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오대산 근처에서 열려, 학술대회가 개최하기 전에 상원사 적멸보궁을 찾았다. 4월 중순인데도 눈이 400mm 이상으로 쌓인 길을 한 시간이상 걸어서 적멸보궁의 지붕 형태, 용돌이, 용의 눈이라는 샘과 사리를 묻었다는 비석 등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특히 상원사의 동종과 문수보살상은 국보36호 및 국보 221호로 관심이 갔다.

국내의 다섯 적멸보궁 중 설악산의 봉정암을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설악산은 그 높이가 1708m이고 더욱이 봉정암은 1244m에 위치하고 있다. 오색약수터에서 등반할 경우 대청봉을 넘어 중청봉과 소청봉을 지나 봉정암에 다달을 수 있었다. 이 1244m의 고지에 5층 석탑을 만들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있었다.

봉정암을 내려와서 영월의 사자산에 있는 법흥사로 향하였다. 법흥사 앞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아침 6시경에 법흥사의 적멸보궁에 도착하여 보궁과 사리를 운반했다는 석관 그리고 자장율사가 기도하던 토굴 등을 촬영하고는 귀가하였다. 이상 세 곳의 적멸보궁을 보았지만, 태백산에 있는 정암사의 적멸

보궁과 사리탑에 대하여 관심이 더 갔다. 2004년 10월 15일 다시 법흥사와 정암사 및 상원사 적멸보궁을 재차 방문하고 부족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암사의 경우 수마노탑을 건립하여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었다. 네 곳의 적멸보궁을 돌아보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지난 2004년 10월 17일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하였다. 통도사의 적멸보궁과 금강계단, 사리탑을 보고는 승보 박물관장님께 몇 가지 조언과 참고문헌 등을 소개받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역시 외국의 적멸보궁에 대한 관심을 갖고 2005년 5월 태국의 Chiangmai에서 개최된 제8차 ASV(Asian Symposium on Visualization)에 참가하면서 Doi Suthep 사와 Suandok 사에서 적멸보궁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2005년 8월 21일 중국 成都에서 개최된 제8차 FLUCOME(Fluid Control, Measurement and Visualization)에 참가하면서 西安의 法門寺를 방문하여 적멸보궁과 부처님의 사리를 접견 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고자, 2005년 9월 8일 및 21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통도사, 상원사, 정암사 그리고 법흥사를 세 번째, 봉정암을 두 번째 방문하여 적멸보궁의 내부와 환기구 등의 부족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는 불교유적중 하나인 적멸보궁과 사리탑 등을 한국 및 일부 태국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명사찰을 답사하고, 참고문헌 조사 및 통도사의 박물관장이신 金梵河 스님, 법흥사의 도완 주지스님 그리고 봉정암의 구암 주지스님 등의 조언과 소개 등으로 마무리하였다.